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Gifts and Records:
140 Years of Korea-France Friendship

France was among the first Western nations to take an interest in Korea. Initially approaching Joseon through missionary activity, France later actively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driven by the broader expansion of Western powers into East Asia. The two nations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on June 4, 1886, with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Joseon and Franc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came to an end in 1910 with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Nevertheles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its activities within the French Concession in Shanghai, and diplomatic relations were restored in 1949.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3,500 French troops fought for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close and enduring relations.

This exhibition has been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Centered on the gifts and records exchanged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nations since the signing of the treaty in 1886, it traces the shared history that Korea and France have built together over the past 140 years. We hope this exhibition will deepen understanding of the long-standi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in the years ahead.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선물과 기록, 한국 – 프랑스 우정의 140년

Gifts and Records: 140 Years of Korea–France Friendship

2026. 8. 14.Fri - 9. 13.Sun

대통령기록관 1층 기획전시실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1F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과 프랑스 우정의 140년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가장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서구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조선에 주목했던 프랑스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수호 통상조약朝佛通商條約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교 후 프랑스 대통령은 먼저 선물을 보냈고, 이에 조선 국왕도 답례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 박탈 이후, 양국 간의 외교는 중단되었으나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프랑스 당국의 묵인하에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수립되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49년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했으며, 프랑스는 6.25 전쟁 때 3,500명의 지원군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지금까지 더욱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상 간에 오간 선물과 기록을 통해 두 나라가 140년간 함께 걸어온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 전시가 양국이 더 깊은 우정으로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1부. 외교의 문을 열다

조불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동행의 시작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본격적인 교류는 1886년 6월 4일(음력 5월 3일)에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에서 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국제사회와 외교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외교조약으로 오늘날 대한민국과 프랑스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불수호통상조약 비준서朝佛通商條約批准書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Joseon and France
1886년
프랑스 외교사료관(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소장번호 TRA18860031_005

양국 외교관의 파견과 활동

1888년에 프랑스 정부는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 1922)를 영사직을 겸한 조선 주재 프랑스 대표(Consul et Commissaire)로 임명하였다. 조선은 1887년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5개국을 겸임하는 주재 공사駐在公使 파견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1899년에야 이범진(李範晉, 1852~1911)을 러시아·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의 공사로 임명해 파견하였다.

프랑스 주간지에 실린 파리 주재 대한제국 공사들
(좌) 유럽 주재 전권공사 이범진과 그의 아들 이위종
(우) 파리 주재 공사로 부임한 김만수
Korean Empire Envoys in Paris
Published in a French Weekly Magazine
L'ACTUALITE
프랑스, 1901년 8월4일자
국립고궁박물관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白磁彩色花文瓶
Painted White Porcelain "Salamina" Vase
프랑스, 1978년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국왕과 프랑스 대통령의 선물 교환

프랑스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디 카르노(Marie François Sadi Carnot, 재임 1887~1894)는 고종에게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등 세브르 도자기 3점을 보냈다. 고종은 같은 해 7월(음력 6월), 카르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국서를 보내며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길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고려청자 등 진귀한 공예품과 의례 및 역사 관련 서적을 프랑스에 답례로 보냈다.

진귀한 재료로 만든 인공 나무와 꽃 장식 공예품
(소나무)좌_ 높이 47, 너비 23cm
(측백나무)우_ 높이 42.5, 너비 24cm
19세기 후반 제작, 1888년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
복제품_국립고궁박물관

2부. 대한민국-프랑스, 깊어지는 교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프랑스의 연대

일제강점기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프랑스는 관계를 이어 나갔다. 1919년 4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당국의 묵인 아래 활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통신국(Bureau d'Information Corée)'을 파리에 설치해 유럽 언론에 한국의 상황을 알렸다. 1945년 5월 김구(金九, 1876~1949) 주석의 독일 항복 축전에 드골은 '일본의 패배는 한국이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답신 으로 양국의 연대를 확인하였다.

서영해가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에게 보낸 편지의 봉투便紙封套
Envelope of a Letter Sent by Seo Young-hae to Tjo So Ang, Foreign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프랑스, 1940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신구 프랑스 영사가 찍힌 사진
佛蘭西領事寫眞
Photograph of the Former and Newly Appointed French Consuls
한국, 20세기 중반
부산박물관 |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시작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1948년 프랑스 파리의 샤이요궁(Palace de Chaillot)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이듬해인 1949년 2월 15일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약 3,500명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헌신하였다. 1958년 10월에는 양국 공사관을 대사급으로 승격 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공진항 프랑스 공사 파견을 결정한 국무회의록
Minutes of a State Council Meeting Deciding to Dispatch Gong Jin-hang as Minister to France
국무총리비서실, 1949
국가기록원

6.25 전쟁 중 열병식 장면
Military parade during Korean War
(출처)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사』, 국가보훈처, 2004년 발행

3부.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다

1986년 한국-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꾸준한 정상회담을 이어왔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북방정책에 대해 미테랑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1993년에는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하여 김영삼 대통령에게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1권을 전달하면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시작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을 재확인하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는 양국 관계를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전현직 의장국으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양국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양국 정상들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통해 오간 기록과 선물은 시대별 외교 현장과 140년 동안 이어온 우정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은제 그릇銀製器
Silver Vessel
프랑스, 20세기
대통령기록관

크리스탈 접시琉璃接匙
Crystal Plate
프랑스, 20세기
제조사_생 루이Saint Louis
대통령기록관

백자 채색 접시白磁彩色接匙
Painted White Porcelain Dish
프랑스, 20세기
제조사_세브르도자제작소Manufacture nationale de Sèvre
대통령기록관

은제 뚜껑이 있는 유리 항아리銀蓋琉璃壺
Glass Jar with Silver Lid
프랑스, 1991년
제조사_장 클로드 노바로Jean Claude Novaro, 1943~2014
대통령기록관

백자 채색 화병白磁彩色花瓶
Painted White Porcelain Vases
프랑스, 1992년
제조사_세브르도자제작소
Manufacture nationale de Sèvre
대통령기록관

크리스탈 화병琉璃花瓶
Crystal Vase
프랑스, 20세기 말~21세기 초
제조사_바카라Baccarat
대통령기록관

크리스탈 화병琉璃花瓶
Crystal Vase
프랑스, 21세기
제조사_생 루이Saint Louis
대통령기록관

만년필萬年筆
Fountain Pen
프랑스, 2013년
제조사_듀퐁S.T.Dupont
대통령기록관

19세기 조선의 모습이 담긴 동판사진 세트
銅版寫眞一式
Set of Copper Plates Depicting Nineteenth-Century Joseon
알베르 다마드Albert D'amade(1856~1941)
프랑스, 21세기
대통령기록관

백자 채색 장식품白磁彩色裝飾品
Painted White Porcelain Vessel
프랑스, 21세기
제조사_세브르도자제작소
Manufacture nationale de Sèvre
대통령기록관

그랑 오피시에 드 라 도뇌르 훈장
佛蘭西大將校勳章
Grand Officer of the Legion of Honour
프랑스, 2018년
대통령기록관